

창지기 세미나

다음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멸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딤후 6:7). 그리고 변화하여 이 시대를 본말할 수 있도록 하라.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삶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삶에서 영생으로 향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마 16:13-18)

이 땅 위에서 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거나 아름다운 곳을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 인간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곳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가?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이 세상 곳곳에 묻히거나 흘리고 지나가는 걸로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역사나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인간의 미래에는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예언은 언제쯤을 길이 있으며,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는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사야는 모든 인류가 기대하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사의 열매에서 한 색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 의 신 곧 주의와 충성의 신이요 의의와 생명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할 것이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범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죄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로 세상을 삼고 인물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혀로 그 혀를리므로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찢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양과 양의 새끼와 함께 누우며 곰과 어린 사자와 짐승의 잔치에 함께 하며 어린 아가씨들이 공녀와 인사와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첫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잔잔하며 첫 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서 노를 낼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될도 없고 상할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색이 나서 만민이 기뻐할 수 있겠고 열명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사 11:1-10).

이사야의 아름다운 예언의 노래가 가이사라 빌립보(Caesare a Philip pi)에서 한 젊은이의 입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게 시작됐다. 그 젊은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3). 제자들은 사람들로 평가를 정작하게 전달했다. '그러는 세례 요한, 요한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14절). 그 젊은이가 계속해서 물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 그 제자들은 중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장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베드로의 대답에 그 젊은이가 몹시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 젊은이를 향해 세 가지로 물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는 무슨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17절), 결단코 유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회교를 그 믿음 위에 세울 것이요(18절),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17절), 결단코 유부의 권세를 이기는 회교,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이야기들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이 모든 이들이 꿈

꾸었던 소망과 환상은 거짓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고 고말임이 우리가 어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후 1:20).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잃어버린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고 노래했던 그 메시야가 진한 신약의 첫 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숨쉬고, 인간의 죄가 씻기는 영원한 곳!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 그리스도의 뼈를 깎아 기둥을 세우고, 그분의 살을 찢어 휘장을 만든 곳, 그의 붉은 피가 칠해져서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져 버리는 곳! 그리고 천부께서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실 가장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고 하고 맛보게 하는 곳!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아름다움 속, 교회의 끝까지 오셨다.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로 상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이며, 부활이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듯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전한 공통적인 메시지였다(행 2:32, 3:15, 4:10, 5:30, 10:40, 13:30, 17:31).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생명의 구원과 십자가를 잃어버렸고 부활의 믿음을 포기해 버렸는가? 구주께서 달린 십자가는 부러졌고, 부활의 소망을 대신하여 이 땅의 유평파를 꿈꾸는 회교의 모습이나 우리의 현실은 아니!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곳을 꿈꾸는 회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교의 머리로, 주인이신 구주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회교는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사회를 청소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더구나 힘을 집착시켜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명을 받은 곳도 아니다. 회교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며, 인간의 영혼을 맑고 정결하게 씻겨주어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거듭난 자들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족속과 왕국에 계사자처럼 살아가게 해야한다. 회교는 인간에게 창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영혼을 건지는 기쁨을 맛볼이 좋지 않은가?

그때가 속한 곳이 아름다운 나라를 성취하는 참 회교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를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이 일하시리라. 성경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이 회교를 이끌어 가고, 말씀이 회교를 향하여 말하게 하라. 회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성들 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라. 자각이 능력이, 그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약속에 능력이 반응하라. '오직 성경이 너에게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주께서 충현회교에게 기회를 주신다. 5대 목회자를 자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라를 건설하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었던 신령한 예배가 드리지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천국의 일꾼을 키우자. 세계와 이 민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신 주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삼으라'(골 3:3). 그리고 회교에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소망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회교의 소망은 모든 사

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단순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라 함이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삶을 창조하신다 (고후 5:17)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하면서 육체의 목마름보다도 더욱 고통스런 영혼의 갈증에 빠졌던 우물가의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영생에 대해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영적 소경 니고데모, 작은 키의 열등감을 극복하려 로마의 편에서 세금을 징수했던 삭개오. 한탄의 빛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가족들을 늘 고통스럽게 했던 귀신들린 무덤가의 남자, 그리고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배리만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회교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바(행 23:6-8). 이들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한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뚜렷있고, 그 길에서 어떤 것인지만 아무 것도 없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다.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디베라 바다의 잔잔함도 아니었고,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스도께 따르는 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 그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의 길이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사람의 위로나 아픔의 우물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영혼의 새로운 삶이었다. 니고데모와 삭개오. 그들에게는 많은 돈과 권력이 결코 참된 필요가 아니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의 신비함, 삭개오에게는 예수와 동행하기 진실로 필요한 것이었다. 바디메오는 어떠한가? 열마나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을까?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영원히 자기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무덤가의 남자에게는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으며, 바를 역시 더 많은 율법을 깨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리나 내세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듯 우리의 삶도 새롭게 창조하시리라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못 박혔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니 마땅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망하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생각해라. 베드로, 우물가의 여인, 니고데모, 삭개오, 바디메오, 무덤가의 남자, 바울! 그리스도께서 이들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스런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고통스런 삶의 영혼을 버리고 그들이 영원한 영혼의 향기로 향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도 새 삶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김성관 목사

청중하기를 싫어하여

(속 7:11~1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으되 내가 불려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려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

오늘의 본문에서 스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가난한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전(前)세대의 실패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스가라의 간절한 외침을 ‘청중하기를 싫어하여’ 거절하였습니다(11절). ‘싫어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의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쫓기려고 하셨습니다(사 1:18 참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들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함

제일 먼저, 죄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파조물들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려하지 않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듣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답답하게 거역한 다른 많은 공훈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딤후 4:4).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

죄인들은 단지 듣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섰습니다(11절). 그들은 하나님의 충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거절한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잠 1:24,28).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귀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딤후 1:4). 이러한 결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요 6:66).

하나님께 대하여 일방적임

죄인들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신들의 귀를 막았습니다(11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은 복을 받으려고 입술로는 끊임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지만 그 마음으로는 듣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귀를 닫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저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뜻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내면의 자아가 그들의 하나님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7:57을 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하

남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더 나아가 난폭하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제사룩에 기록된 일곱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는 끝날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소서”. 성경은 우리가 주의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같은 마음

포로된 백성들은 우선 하나님의 초청과 그의 충고를 거절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모든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한 돌같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12절). 마음이 돌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홀려나오는 온유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자신의 자아와 욕망과 명예만을 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충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청중치 않는 대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히 3:7-8).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내가 불려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려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13절). 재앙이 닥쳐서 하나님이 필

요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불려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닫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상기시키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죄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죄에 배부를 것입니다(잠 1:31). 다시 말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은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돌아라, 이스라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복을 가져오는 생명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분도 여러분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홀려 떠나려갈까 염려하노라”(히 2:1). 이 세상과 세상의 조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시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어깨를 멀리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추고하고 나의 온 집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을 끌어안고 위로하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비의 초청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해 여러분의 귀와 입과 눈과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

R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땅 끝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먼 나라 R국은 '가난'과 '이슬람'이라는 거짓 종교의 굴레' 이 두 가지의 무거운 멍에를 진 나라처럼 보였다. 짧은 여정이었기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두움의 권세가 R국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회적인 분

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두웠고 사람들은 생기가 없어 무언가에 눌리고 틀에 갇힌 듯 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약한 세력이 이 나라를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칙철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셋발갈고 등불같은 R국의 진정한 소망의 빛을 보았

다. 그것은 소수였지만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침 이슬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기와 교로 사신 하나님님의 자랑스런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얻는 주님의 사랑스런 신부였다. 누가 그들에게 불쌍한 사람이라며 동정의 눈길을 보낼 것인가? 세상의 부요를 다 누리면서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그들은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R국에서도 R국 영혼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들의 헌신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슬람으로 인한 영적인 어둠과 가난 그리고 끝없이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R국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성록 선교전도사)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요한 (대학부 1학년)



하나님께서서는 이번 인도 단기선교를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단기선교를 가기 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식당에서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잘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현지 음식을 두고 맛이 어머니며 머뭇거리며 땀을 보고는 '선교 와서 자기 입맛대로 먹으려고 하면 되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은 저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 너무 무리하게 먹은 탓에 배탈이 났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못 마시게 되자 그다음 나라에서 물을 끓여 녹차를 타 마셔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치면서 먹던 음식의 냄새만 맡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좀 괜찮아 지긴 했지만 밤을 제대로 못 자고 못 자고 기운도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일어나는 시간이 정말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선포지 밑에서 드러눕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배탈 하나로 이렇게 무기력해 지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배풀어 주신 은혜로 저의 몸이 건강했던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탈을 통해서 저의 약함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인도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꾸준히 연락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망글라데시를 마음에 품고

김유석 (예바다부)



났을 때 그 청년에게서 자신의 형수가 기독교인이라는 반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온 '크리스천'이라 하는 한 마디로 저는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상에 가깝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형수와 태어난 지 며칠 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성경책을 펴 시킨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인 그 청년과 그의 형이 복음을 받아들일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 믿음을 지키는 자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도 나 자신에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의 집을 나서며 망글라데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하나님은 저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기간 내내 저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망글라데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법 힘들었지만 사역을 통해서 망글라데시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든지 주를 따르길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간의 설

레임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을 비행기에 남기고 다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의 그 긴 시간을 통해 고민하고 꿈꾸었던 많은 상상과는 달리 망글라데시는 처음부터 저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첫 인상을 안겨 주었습니다. 무질서와 매연, 가난,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의 행렬.....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꺼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의 마음이 약해졌고, 이러한 모습을 다른 동료들에게 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바타 학교 성경학교사역과 다카 대학교 전도사역 등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은 일정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사역을 나간 어느 오후, 공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과 약간 친해진 후 예수님 얘기를 꺼

존재로서 사랑받기

권 오 경 (대학부)



어전다며 공동체에서 함께 있자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믿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상하에 날 맡겨서인지 어찌다가 선교단체의 수련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또 다시 당신게 행함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걸 알려주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2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눌려있었다는 것도 알게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내 주위 환경이 어땠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학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서 사랑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다. 그분이 내게 하시고 하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과 과제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일까? 그분과 시작하는 오늘 아침은 참 좋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존재로서 사랑받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참 좋다.

한 동안 참 많이 그랬던 것 같다. 정말 이지 잠적하고 싶었다.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기는 시작했고, 뱀뱌를 섬기고 책임지려는 마음을 재점검하지 못한 채 다시 리더로 섰다. 헌신하려는 마음도 없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웠다.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이 복잡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조금은 뒤로 미루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잠시 잊은 채 혼자 뭔가 정리하면 나아질 것 같았다.

이런 나의 심정을 소그룹 시간에 나누었던 니 리더 언니는 혼자 있게 되면 두 배로 힘들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한 번의 삶을 경영하며 산다. 단 한번이라는 것, 그 희소성이 주는 긴장감. 이 선물이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며 언젠가 주인 앞에서 그 열매를 게수할 날이 온다는 사실은 게르코 나태해지려는 나의 본성을 깨운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본다.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 등...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동케 한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고 높임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사회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들이밀고 따를 것을 강요한다.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귀한 소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 목표, 의미가 되어

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못된 습관이 있음을 본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죽지 않은 옛사람과의 싸움이 아직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있음을 본다.

자꾸만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전 것들이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익숙한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놀라며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의지함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내게 정말 필요함을 새삼 느끼며 다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주시기를 조용히 구해본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대학부 교사)

만평

글·그림·김범한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네!

고 은 영 (대학부)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네!
불가능이 불가능할 뿐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리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숙히 깨달아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손길에 치유가 있네
그분이 따져주시면 당신의
꿈과 마음과 영이 소생되리

자주께 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믿으라
궁궐히 여기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순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단 한번 주님의 손길로
단 한 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다 이루어지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신 것뿐

자주께 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믿으라
궁궐히 여기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순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나는 모든 기적을 기대하네
믿고 말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믿네
나는 모든 기적을 기대하네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아여 또 하나의 예루살렘성

김 운 섭 (집사, 초등학교 교사)

장구어진 사기처럼 켜그렁 소리나는
구원의 가을하늘 저 너머 분향하네
눈부신 낙하한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이 도시 바다위에 떠 있는 섬 땅치하나
같은 목 축여주는 이 시대 젖줄이라
그나마 슬픔 띄는 곳 너는 충현이라.

하늘을 우러러친 마흔 여덟 무재만큼
어린양 가슴결쳐 우주를 품안다네
영원히 빛나는 태양 오늘도 떠오른다.

이제 목자는 다시 양을 향해 걸친다
들어도 또 들어도 노상하는 하늘비밀
반세기 늘 푸른결을 이 시대의 동방자.

암흑의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세운 거성
십자가 높이 들고 이 땅을 지켰네
멋져라 그대는 중원 거룩 거룩함이어.

모처럼 한 가족이 어우러져 좋아라
손과 손 굳게 잡고 기원하는 살비들
뜨락을 오가는 이마다 환한 미소 흐르네

내 입술의 찬송

나도 본받으리

이 은 혜 (대학부)

저는 찬송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전에도 찬양을 자주 부르곤 했지만, 제가 찬
송을 정말 좋아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에게 많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주님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은 찬송 안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
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기쁘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찬송가가 다른 찬양보다는 좀 단조롭고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
만 그런 단순한 분위기로 부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찬송은 슬픔과 아
픔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7장을 보낼 알 수 있듯이 찬송에도 말
만만큼 깊고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은혜야, (1절)

지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너도 알지? 세상이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

은혜야, (2절)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늘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나 너도 늘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라. 내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하기를 바란단다..

은혜야, (3절)

힘들지? 세상이 다 이렇단다...

하지만 은혜 내가 바라볼 곳은 바로 십자가란다..

십자가를 통해서 더 나은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은혜야, (4절)

그날이 멀지 않았단다.

그날이 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때까지 나를 바라보며 내이웃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지만, 어느 환경에서나 영향을 받아 잘 버리고
달아나는 내 자신을 보며 나에게에는 왜 아직도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못 하는지 만
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저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분만
을 찬송하며 담기를 소망합니다.

+ 양오설

"은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7교구 장혜숙(여56세) 99년 심장이식수술 후, 목아래 가슴 윗부분에 묶은 화
농이 번져 있어 치료 중이며, 중앙 병원 동안 1210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인경희**
(여52세) 난소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12차 항암치료가 잘 적용되어 치료 만족
기도 부탁드립니다.

8교구 신이목(남61세) 간암으로 심신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을 의지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5교구 신재금(여54세) 2년 전 위암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었으나 현재 장유
창으로 재입원하여 수술해야할 형편입니다.

참된 복음의 선포와 교육 속에서 영육의 치유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버나드

하나님의 아이

많은 수도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나드 역시 하나님과의 결합을 추구했다. 마
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하여 서로를 함께 나누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
지고 싶어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었다. 거기에
만 사람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있을 때 수도사들은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세
상의 것들을 소유하고자 손을 휘젓는 것처럼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단
번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애를 광야에서 소비하였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지고의 열락을 맛보고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대의 목표로 삼
고 평생을 보냈다. 그 가운데 버나드는 누구보다도 깊은 차원에 있었다.

버나드의 성품은 매사에 성스러운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어린이의 마음 그대로였다. 단순한 마음으로 무섭도록 수도에 몰두하
였고 죽도록 마귀와 싸웠다. 버나드는 철갑에 중에서 중간이었고 체질이 약하여 작고
아원 소년이었다. 금발에 연한 푸른 눈의 모습으로 사람과 위엄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을 다스렸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신앙심은 그의 어머니의 엄격한 훈련에서부
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리고 사모했다. 그가 쓴 '예수, 나의 아름다운 주여'
이란 노래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마치 세상의 연인들의 것처럼 표현되어 있
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즐거웁고, 그 얼굴을 뵈매야 얼마나 좋으랴.

인류의 구주 게다가 당신의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을 중히할 때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아찌 더 말하라, 그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의 사랑 예수여 내기쁨 되시고, 이해와 또한 영원한 영광이 되소서.

그의 삶도 다른 모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 아이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되고 있는
것이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다음주일 찬송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월 레미타인 톰프슨이 녹 15:11~32:00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아들이 돌아오기
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복음의 찬송을 작사·작곡하
였다.

1절: 부드럽고 다정하게 예수가 부르신다. 너와 날 부르신다. 문에서 지나시며 기다리시는 주를
보라, 너와 날 기다리고 계신다.

후렴: 집으로 오라, 고고한 자여 집으로 오라. 진실하고 다정하게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 죄인아
집으로 오라!

2절: 예수께서 간청하시는데 왜 지체해야 하나? 너와 나에게 간청하시는데 왜 지체해야 하나?
왜 머뭇거리며 주의 자리에 무관심하는가? 너와 날 위한 자비인데 왜 무관심하나?

3절: 세월은 달리고 시간이 흘러간다. 내 내게서도 시간이 흘러간다. 어둠 짙어가고 죽음 다
기운다. 너와 나에게 죽을 다가온다.

4절: 놀라운 사랑 주시기로 주님 약속하셨네. 너와 나에게 약속하셨네. 우리 비록 범죄하였어도
주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네. 너와 날 용서하시라!

무디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던 톰프슨은 어느날 병중의 무디를 방문했다. 아무도 문병이
하러다니지 않았으나 무디 선생은 톰프슨의 손을 잡고 "내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그 무
엇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찬송을 비교할 수 있겠소?"라며 이 찬송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참으로 위대한 찬송입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
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그리고 부드럽게 음성으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면서도 감히히 부름입니다.

(찬양위원회)



조은명 선생님

상처 입은 어린양 ‘미화씨의 교통사고’

조은명 (사랑부 교사)

사람무에는 다소 몸이 불편하지만 아이같이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분, 정미화씨는 미소가 정말로 아름다운 아주 맑은 영혼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그런 미화씨가 얼마전 길을 잃고 도로변에서 미화씨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장애인들은 세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

선생님들은 놀란 가슴과 걱정을 안고 미화씨가 입원한 삼성의료원을 방문했다. 어째 때에 급이 가고 얼굴에 급이 가는 큰 사고를 당해서인지 어깨엔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짙은 피멍때 든 모습이 선생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래도 다행히 앓을 수 있는 모습을 보니 주님이 미화씨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미화씨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아프지 않나나는 선생님의 물음에도 하나님께 다 갖게 주실 것이라며 열려 나야 친구들이 있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양이기에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어깨와 안면 수술 또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한다.

미화씨는 사고를 당한 후 이틀 동안

이나 보호자를 찾지 못해 어머니님과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남아 있는 미화씨를 어떻게 하느냐며 하루도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분인데 이번 사고로 얼굴이 무척 아파졌다.

이번 사고는 미화씨가 자동차 도로인 줄도 모르고 서 있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거라 한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는 미화씨에게는 커다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미화씨를 격려는 사랑부 선생님과 주위의 큰들의 기도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미화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미화씨의 건강을 다시 하복해 주시라는 것을 믿는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씩씩하게 사랑부에 들어오시는 미화씨를 볼 수 있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 드린다.



정미화씨

일본 오이타에서 온 감사의 편지

한국교회와 교제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순회교의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 선교를 왔던 한국 농어업 성도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순회교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5부까지 드리는 주일예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오고가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한국의 신자수가 일본에 비교가 언뜻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대 예배실에 들어서자 연속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찬양 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오르غن 연주자 모두가 합심하여 잘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멀리서도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TV시설과 외국인들을 위하여 3, 4개국 언어를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갖춰진 동시통역 시스템,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이 마련되어 진정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뜻깊은 모임을 일본에서부터 많은 기도를 가지고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순회교회의 방문은 한국교회의 성장된 모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감격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 동안 농어업 학생들에게 3부 예배, 성찬전 집회와 저녁 찬양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좋은 순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왕의 교회와 성대한 영구소의 역사관을 관람하면서, 가슴 아프고 괴로운 역사의 발자취를 따돌아 볼 수 있었던 것도 값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여러 곳을 안내해 주신 순회교회 예배대부 여러 형제·자매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회 기도원의 편안하고 시원한 숙소와 좋은 한국음식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순회교회를 방문한 저의 일행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에서 교회에 출세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믿게주신 성도의 사명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순회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모리 도시노리 목사

진리의 생

다니엘(Dani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니엘에 대해서 아십니까?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단 1:7). 그것은 '벨의 왕자' (Bel's prince)라는 뜻인데, 바벨론에 있는 이방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단 4:8, 사 46:1, 행 50:2, 시 51:44). 그런데 불국하고 그는 결코 이방 신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의 성격을 살펴보면 결단력이 있었고(1:8), 용기 있게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세 번씩이나 "우종들 크게 임자'라고 그를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9:23, 10:11, 19:23).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자", 이것이 다니엘에 대한 간결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에는 전체적인 목적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니엘'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즉시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의 음지, 꿈 해석, 금 신상, 음모, 불무불, 그리고 사자굴, 출세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서에는 앞에서 열거한 단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즉,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소란없이 자신의 신성한 백성을 붙잡고 일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왕의 왕' (King of kings)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다니엘서'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맞추어서 읽어야만이 바랍시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니엘서' 전체를 1장~6장, 7장~12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우선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이방의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 포로의 신세이던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단호한 결단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단 1:8). 다시 쉽게 말씀드릴까요? 1장~6장을 읽으실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땅이라는 약조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단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우리는 구약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가지를 지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결단력이 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린 이방의 땅,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열매 맺는 선교적 목적의 성취를 말하셔서 한다는 것입니다(그 당시 가장 강한 세상 나라의 왕의 입으로부터 '참된 왕은 하나님' 이시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김동하 목사·판권자 지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만 남

인문 스치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보라요, 보고 싶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가진 후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일마 전, 예쁜 편지지에 연필로 한자 한자 정성껏 쓴 눈물 어린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척 아팠다. '정들자 이별'이란 말대로 만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헤어짐으로 서늘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편지의 주인공 보라는 지난 여름 춘천전 도사역 때 여름성경학교에서 만난 아이다. 아마도 보라와 만남은 믿음이 식은 나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사랑의 만남이라고 생각된다. 그 당시 여름내내 살에 대한 문제로 전전긍긍하던 나는 사역 현장에서도 웬지 모르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한 때마침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바로 보라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사역지를 떠난 날,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그 아이의 슬픈 미소와 따뜻한 사랑의 눈길은 나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많은 만남을 주선하신다. 마음에 상흔을 남기는 서럽고 쓰라린 만남이 허전하다.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 주는 좋은 만남도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인양의 막다른 길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만남이다. 웬지 마음이 출세하고 쓸쓸해지는 가슴을 맞이하여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갈망하여 본다.

(김성희 기자)

★ 충청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중환에 죽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